

쪽방촌 사람들의

희망찾기

(7 끝) 우리의 이웃 쪽방촌 사람들

나눔의 행복, 그들을 양지로 이끌다



“나눔에 답이 있습니다.” 본지가 만난 쪽방촌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다. 쪽방촌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는 이들이었고, 그들의 나눔은 쪽방촌 사람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이끌고 있었다.

#나눔사랑 전도하는 쪽방인

선천적 지체장애 3급인 양성철(가명·55)씨는 다리가 불편하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작은 봉제공장을 운영하다 IMF때 거리로 내몰린 그는 이혼 후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결국 노숙자로 전락했다. 대구역 근처에서 노숙자로 전전하다 2년전 주위의 도움으로 매일 임대주택에 입주했다.

그는 5년전부터 병든 쪽방거주민들의 병수발을 들고, 독거노인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보일러와 전기시설 등을 무료로 손봐주고 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쪽방인이 숨지면 상주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3년전부터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며, 더불어 살아가는 법 등을 들려주는 일도 한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 잘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한달에 40여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예전 따두었던 보일러, 전기관련 자격증이 쓸모가 있어 다행”이라며 “나같은 사람도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그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대학생인 된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개인봉사자외에도 대구쪽방상담소에는 ‘자존감향상-당사자봉사단’이란 쪽방인들로 구성된 봉사모임이 있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 동대구역 인근에 설치되는 무료급식소에 사용될 음식들을 손수 준비한다.

앵벌이로 어린시절을 보내고 수년간 거리노숙을 했다는 박한기(가명·49)씨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나도 언젠가는 봉사활동을 해야지’라는 약속을 지켜 좋다”고 말했다.

#빈곤층 의료 접근성 높여야

쪽방인들의 병수발을 하고 있는 양씨는 “경제적 이유로 질병과 고통을 참아내며 생활하는 많은 쪽방, 거리노숙자들이 의료 사각지대에서 질병을 키워가고 있다”며 안타까

워 했다.

대구쪽방상담소는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함께 쪽방 및 노숙자를 위해 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료진료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인력 및 예산부족 등으로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고 한다.

수입의 90% 가까이 주거비와 식비로 지출하는 빈곤층의 경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료비 지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료급여 1·2종 수급자라 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여전히 높아 병원이용을 꺼리고 결국 병을 악화시키고 만다. 특히, 의료급여가 없는 쪽방거주자나 거리노숙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윤승걸 원장은 “의료사각지대의 쪽방거주자들은 질병이 악화돼 경제활동을 못할 경우 쪽방을 떠나 거리노숙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의료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을 하향조정하고 병원 등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 이들의 재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최초 노숙인보호 조례 추진

지금 대구에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빈곤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첫 조례라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쪽방인 등 빈곤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숙인(쪽방거주민 등 예비노숙인)을 지원대상으로 한 ‘대구시 노숙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는 노숙인 및 예비노숙인 실태조사와 보호·자활 계획,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의료주거직업훈련취업 등의 지원, 입소시설 설치·운영 등의 사업과 관련예산 확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안 입법을 추진중인 대구시의회 박부회 의원은 “의원들의 호응이 좋아 조례 입법화는 긍정적”이라며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미흡한 현실에서 이들 자활을 돕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작지만 뜻 깊은 노력이 지역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문의: (053)356-3494. 계좌번호 007-04-000442-7 (대구은행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